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OCN '야한' 영화 승부 '에로틱판타지…' 방영

영화채널 OCN이 '자극적이며 야한' TV영화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OCN은 파격적인 에로티시즘을 다룬 8부작 '에로틱판타지 천일야화'(감독·각본 김정구)를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2편씩 방송중이다.

'에로틱판타지 천일야화'는 페르시아의 설화 '천일야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 타로 카페 아라비안나이트를 찾는 각기 다른 주인공들의 꿈 같은 8가지의 에로틱한 경험담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했다.

배우 김보경〈사진〉이 주인공들의 특별한 사연을 경청하고 조언하는 카운슬러 역할을 하며 타로 카페의 여주인으로 극의 흐름을 이끌어나간다.

누구 연기가 최고였나요?

방송 3사 연기대상 관심 고조

연말을 맞아 방송 3사가 진행하는 연기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수상 남발 등으로 상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평도 있지만 어찌됐건 1년 농사를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방송사나, 배우들 모두 기다리고 있는 행사다.

지난해에는 '황진이'의 하지원, '주몽'의 송일국, '하늘이시여'의 한혜숙이 대상을 거머쥐었다. 올 연예대상의 향방을 점쳐본다.

▲MBC

MBC는 '드라마 왕국'이라는 명성 답게 올해 가장 많은 화제작을 쏟아냈다. 시청률 순위에서는 KBS의 주말극이나 일일극에 밀렸지만 시청자들의 관심과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는 단연 우위를 지켰다.

일부 언론을 통해 '내정설'이 흘러나오기도 한 '태왕사신기'의 배용준은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 600억원이 투입된 대작 '태왕사신기'는 '새로운 형식의 드라마'라는 평을 받았으며 시청률도 30%가 넘는 흥행 대박을 터트렸다.

KBS에서 '불멸의 이순신'으로 대상을 받았던 김명민은 또 한번 대상에 도전하고 있다. 올 초에 방영된 '하얀거탑'에서 장준혁이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한 김명민은 연기파 배우로의 입지를 다졌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중인 '이산'에서 각각 영조와 정조를 맡고 있는 이순재와 이서진의 수상도 점쳐지고 있으며 화제를 모았던 '커피 프린스'의 윤은혜, '나쁜 여자, 나쁜 남자'의 최진실, '히트'의 고현정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SBS

미니시리즈가 강세를 보인 SBS는 김희애와 박신양이 경합중이다.

'파리의 연인' 이후 오랜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 박신양은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사채업자 금나라 역을 맡아 강한 인상을 남겼다.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쩐의 전쟁'은 3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SBS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했다.

김수현 원작의 '내 남자의 여자'에서 친구의 남편을 뺏는 악녀 역으로 등장한 김희애는 기존의 이미지와 다른 파격 변신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그밖에 현재 방영중인 '왕과 나'에서 내시 조치겸으로 열연중인 전광렬과 메디컬 드라마 '외과의사 봉달희'의 이범수와 이요원도 수상이 점쳐지고 있다.

▲KBS

전통적으로 일일드라마와 주말드라마에서 강세를 이어온 KBS는 올해도 '하늘 만큼 땅만큼' '미우나 고우나' '행복한 여자' '며느리 전성시대' 등이 시청률 고공행진을 했다.

하지만 가족드라마라는 극의 특성상 눈에 확 들어오는 배우가 없고 화제성 면에서도 떨어져 뚜렷한 후보군을 찾기 어려운 상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사극 '대조영'에서 열연하고 있는 최수종. 하지만 최수종이 학력위조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이해고 역을 맡고 있는 정보석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희애〉

〈김명민〉

〈최수종〉

■올 방송·영화계의 유행어·명언

"아무 이유 없어" "쇼를 하라" 등 엉뚱한 상상 폭소

"광주시민 여러분, 잊지 말아 주세요" 눈물샘 자극

올해는 어떤 유행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을까. 올해 시청자와 관객의 무릎을 치게 만든 재미있는 유행어와 어록을 소개한다.

'죄민수' 조원석은 군계일학이었다. 배우 최민수의 캐릭터를 '시건방지게' 소화해 큰 인기를 모은 그는 "피스", "아무 이유 없어", "~계의 슈레기(쓰레기)" 등의 유행어를 쏟아냈다.

또 '같기도'에서 김준호 등이 선보인 '이건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여'. '까다로운 변선생'은 '~아니죠, ~맞습니다'라는 유행어로 사랑을 받았다.

'오~케이'도 유행어가 될 수 있었다. 박해미가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거침없이' 외치고 다닌 덕분이다.

또 '거침없이 하이킥'은 최고 인기 시트콤답게 '야동순재' '식신준하' 등 독특한 신조어도 양산했다.

'태왕사신기'에서 오광록이 독특한 억양으로 말한 '아~수지니야~'가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고, 담덕 역의 배용준도 "죽지마. 이건 임금의 명령이야"라는 멋진 대사를 날렸다.

특히 '이산'의 홍국영의 말투는 어록으로까지 정리돼 네티즌의 관심을 모았다. "아둔하기가 꼭 돼지 같다더니 자네가 딱 그 짝이구만" "걱정이 반찬이면 상다리 부러지겠네" 등이 대표적이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이요원이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호소하던 대사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 '바르게 살자'에서 순경 정재영은 은행강도 대비 모의훈련에서 "최선을 다해 움직이지 마"라는 말을 해 관객을 웃겼다.

'디워'를 연출한 심형래 감독은 비판에 대해 "왜 내 영화만 갖고 그러냐"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고, 이에 진중권은 "'디워'에 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구가 영구 없다'라고 하는 꼴"이라고 날카롭게 비꼬았다.

CF에서는 "쇼를 하라 쇼"라는 말이 인기를 모았고 '무한도전'은 '셧쎄요~' 말투를 유행시켰다. /연합뉴스

12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어거스트 러쉬	25만 4천767	82만 6천241
2	세븐데이즈	16만 7천30	167만 485
3	헤어스프레이	10만 7천219	13만 3천286
4	색, 계	10만 4천490	162만 8천512
5	식객	9만 1천577	286만 6천683
6	우리동네	5만 8천249	31만 1천285
7	열한번째 엄마	5만 7천151	27만 9천598
8	데스 센텐스	3만 6천434	4만 4천607
9	히트맨	2만 3천920	14만 3천173
10	베오울프	1만 7천698	95만 7천57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태왕사신기	MBC	35.7
2	대조영	KBS1	31.0
3	미우나 고우나	KBS1	29.6
4	며느리 전성시대	KBS2	29.4
5	무한도전	MBC	28.5
6	황금신부	SBS	24.6
7	이산	MBC	22.2
8	야현동 마님	MBC	21.2
9	왕과 나	SBS	20.1
10	개그콘서트	KBS2	18.5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오션스13	드라마
2	만남의 광장	코미디
3	스파이더맨 3	액션
4	에반 올마이티	코미디
5	제9중대	드라마
6	기담	공포
7	300	액션
8	두사람이다	공포
9	해부학교실	공포
10	넥스트	SF

〈자료제공:영화마을〉

가 요

순위	제 목	가 수
1	마지막 인사	빅뱅
2	텔 미	원더걸스
3	첫 눈	SG워너비
4	TPL	애니밴드
5	배반	빅마마
6	거짓말	빅뱅
7	프라미스 유	애니밴드
8	니가 사는 그집	박진영
9	슬픈 바보	민경훈
10	소녀시대	소녀시대

〈자료제공:멜론〉